

중세인과 괴이(怪異)

- 대마도 정벌을 둘러싼 괴이 소식을 중심으로 -

ZHANG NA (도호쿠대학)

1. 서론

대마도 정벌은 1419년 6월 조선군이 대마도를 공격한 사건을 가리킨다. 조선에서는 이를 기해의 동정이라 불렀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14세기 중반 이후에 활발해진 왜구 문제가 있다. 1419년 5월, 대마도 내의 해적이 중국(명나라)으로 향하는 도중, 조선 연안 각지를 노략한 뒤 떠났다. 조선은 대응책으로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로 파병을 보내기로 한다. 같은 해 6월 19일, 227척의 병선과 17,295명의 병사가 거제도를 떠나 다음날 대마도에 도착한다. 6월 26일 조선군은 니이군(仁位郡)으로 진격하지만, 복병을 만나 패퇴하게 된다. 이후, 대마도주(對馬島主) 종정성(宗貞盛)이 정전 수호를 요구하면서 조선군은 철귀하여 7월 3일에 거제도로 돌아오게 된다.¹⁾

일본 측 사료에는 대마도 정벌과 관련하여 몽고와 고려 연합군이 일본을 공격해왔다는 오기(誤記)가 있으며, 대부분의 사료가 괴이 현상에 대한 기록이다. 20세기 30년대가 되어서야 일본 연구자들이 조선 측의 사료를 근거로 하여 대마도 정벌의 진상을 밝혔다. 21세기에 들어선 후 연구자들이 괴이 현상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지만, 괴이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관심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괴이는 자발적으로 나타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다. 괴이 소식 발포→유포→이용이라는 과정이 명확히 존재함을 짚고자 한다. 이 과정에는 신사, 무가, 공가 등의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이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괴이에 개입한 목적 또한 동일하지 않다. 본 발표에서는 대마도 정벌을 둘러싼 괴이 소식을 공포→유포→이용이라는 과정에 따라 고찰하고, 그 과정과 관련된 인물과 그들의 입장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2. 대마도 정벌을 둘러싼 괴이 소식

대마도 정벌에 대한 최초의 기재는 『간문일기(看聞日記)』²⁾에서 나온다.

“대당국. 남만. 고려 등의 나라가 일본을 침략할지도 모른다.”

——1419년 5월 23일

이처럼 일본 측 사료에는 대마도 정벌을 ‘대당봉기’, ‘당인습래’ 또는 ‘이적(異賊)은 몽고’와 같이 기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짜 정보와 함께 괴이 소식이 들끓기 시작했다.

2.1 괴이 소식 발포

대마도 정벌에 대한 괴이 종식의 주 발포자는 신사다.

“대당봉기가 일어난다고 한다. 이즈모타이샤에는 진동과 유혈, 니시노미야아라에비스구에는 진동이 느껴졌다. 또 히로타샤에서 수집 기의 병사가 나와 동쪽으로 향했다. 그중에는 여자 무사가 한 명 있었다고 한다.”

——『간문』 1419년 6월 25일

“기타노샤에서 영혼이 나와 서쪽으로 날아갔다고 한다. 신사 내 궁전 문도 열려 있었다고 한다.”

1) 참고문헌

2) 이하 『간문』이라 칭한다.

여러 신사에서 괴이한 일이 벌어져 놀라울 따름이다.”
——『간문』 1419년 6월 29일

“금월 16일 아쓰타샤에는 괴이한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 비바람이 몰아친 후, 해수면에는 육천 평가량의 빛이 나타났고, 빛이 비추는 곳의 민가는 모조리 폐허가 되었다. 그 후 신사 앞머리가 소녀로 변하여 신탁을 받았다고 한다. 오늘 밤의 빛은 이세이 신의 그림자다. 산의 발이 부정하기에 이 신사에서 신들이 이번 이국 습래라는 중대한 일에 평결을 내리시게 된다. 하치만신도 함께 향하고 있다고 한다.(중략) 이 급보는 18일에 도착했다고 한다. 다이라노마사카도 때와 같이 칙사를 요청했다고 한다.”

——『만사이 지고 일기』 3)1419년

7월 19일

상기 인용 사료 밑줄 부분에서 알 수 있듯, 이국의 습격 정보를 접한 뒤, 여러 신사로부터 괴이 소식이 발포되었다. 사단 진동이나 유혈과 같은 괴이 현상 외에도 각 신사에서 ‘병사 수십 기’, ‘여자 무사’, ‘영혼이 날아가다’, ‘이세이 신의 그림자’와 같이 ‘영묘’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각 신사에서 상기와 같은 괴이 소식을 발포한 것은 이국 습래라는 위협을 앞에 두고 신들이 위기를 감지함과 동시에 실제 전투의 조력자가 되어 신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각 신사의 영험함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상기 인용문의 마지막 사료에 ‘이국 습래’ 때문에 신들이 아쓰타샤에서 평결을 내린다고 되어있다. 아쓰타샤는 이를 공적으로 삼아 칙사 파견을 요청했다. 이처럼 각 신사는 괴이 소식을 정권 측에 급보함으로써 대우를 받고 은상을 하사받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2.2 괴이 소식 유포

본 소제에서는 막부와 공가(조정)가 급보로 받은 괴이 소식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고찰한다.

“대당국, 남만, 고려 등의 나라가 일본을 침략하겠다는 기별이 고려에서 왔다고 한다. 이를 들은 무로마치 님은 크게 놀라셨다. 그러나, 신국(神國)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간문』 1419년

5월 23일

(쇼니 미쓰사다의 급보 내용⁴⁾을 무로마치 앞에서 읽자)“천하일동 모두 기뻐였고, 무로마치 님 또한 기뻐하셨다. 공무 사람들이 참하하고, 상황의 거처에서도 축하하였다고 한다. 어제 주지, 관백, 대신 등의 사람들이 대부분 참하하였다고 한다. 후대의 신령라고 할지라도 기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간문』 1419년

8월 11일

(규슈단다이의 급보 내용⁵⁾을 기록한 후)“후대 신명의 위력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이 급보 또한 참이다.”

——『간문』 1419년

8월 13일

이처럼 막부와 공가는 급보로 받은 괴이 소식에 대해 ‘신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후대의 신령라고 할지라도 기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후대 신명의 위력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이 급보 또한 참이다.’ 라는 감상을 남기며 유포했다. 즉, 막부와 공가는 대마도 정벌을 둘러싼 괴이 소식을 신국 사상의 예증으로 이용하며 ‘우리나라는 신국이다’라는 점을 증명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공가는 대마도 정벌 시에 나타난 다양한 ‘영묘’한 일을 유포함으로써 일본이 신명에게 보호받고 있는 신국이라는 점을 증명함과 동시에 일본은 신=천황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공가는 괴이 소식 유포를 통해 흔들림 없는 천황의 신성한 권위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3) 이하 『만사이』라 칭한다.

4) 쇼니 미쓰사다의 구체적인 급보 내용은 발표 구성에 따라 다음 소제에서 인용한다.

5) 이 급보에도 각종 전투 중에 일어난 ‘기이한 현상’에 대한 기록이 적혀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소제에서 인용한다.

그렇다면 막부는 왜 이 시점에서 천황의 정통성을 지지하는 신국 사상을 제창하였는가. 대마도 정벌이 일어난 시기는 마침 막부 쇼군인 요시모치가 명나라에게 강경한 외교 태세를 취하고 있을 때였다. 1419년 6월, 명나라 사절 어연(呂淵)은 일본 하카타에 도착하지만, 요시모치에 의해 입국을 거절당했다. 또한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에 대해 요시모치는 이하와 같이 주장했다.

“본국 개국 이래 모든 일은 신이 주관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 신이 허락지 않는 일이라면 사소한 일이라도 그에 따라야 한다. 우리 선군(아시카가 요시미쓰)이 여러 사람에게 현혹되어 외국과 제멋대로 친교한 이후 신과 인간의 불화로 인해 청우의 규율이 흐트러지고, 선군도 병을 얻어 돌아가시게 되었다. 선군의 서거 이후, 외국과의 교류를 끊기로 맹세하였다. 지금 내가 어찌 선군의 맹세에 등을 돌리고 신의 현장을 어기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선린국보기』중권 1419년 7월 20일 아시카가 요시모치

즉, 요시모치는 부친 요시미쓰가 외국과의 친교로 인해 신에게 벌을 받았다고 말하며 명나라와의 친교는 신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명나라와의 조공외교를 거부하였다. 또한 몽고 습래 당시, 몽고선이 바다에 빠진 것을 신의 뜻이라 하며 일본이 신국이라 주장하였고, 명나라의 위협에 대해서는 성지를 강고히 할 필요 없이 그저 맞이하기만 하면 된다고 도발하였다.⁶⁾ 이처럼 일본과 명나라의 관계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였고, 요시모치는 신국 사상을 근거로 자국의 우월성을 주장하려고 하였다.

사사키 가오루에 의하면 일본이 신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신국 사상은 8세기 신라, 당나라와 관계함에 있어서 일종의 외교적 방파제 역할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⁷⁾ 8세기로부터 700년이 지난 1419년이 되자 막부는 신국 사상을 주창하며 명나라의 화이사상을 정면에서 도전함으로써 긴장되어 있는 대외 관계에 일종의 자아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공가와 막부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대마도 정벌을 둘러싼 궤이 소식을 신국 사상의 예증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3 궤이 소식 이용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마도 정벌을 둘러싼 궤이 소식을 이용하였다. 우선 지쿠젠 수호 쇼니 미쓰사다의 급보를 보겠다. 이 급보는 1419년 8월 7일 쇼군 요시모치 앞에서 낭독되었다.

“급보에서 전하기를 몽고선 선봉이 오백 척 가량 있다고 한다. 이들이 대마도로 몰려들었다. 쇼니 미쓰사다의 칠백 기 병사가 진격하고 있다. 6월 26일 하루 종일 합전중이다. (중략) 이국의 대장 두 명을 생포하였는데, 이들이 자백하기를, 이 오백 척의 배는 고려국의 것이다. 이만 척 가량의 당나라 배가 6월 6일 일본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태풍이 몰아쳐 당나라 배는 모두 돌아갔다. 절반 이상의 배가 바다에 침몰했다고 한다. (중략) 이번 합전 중 기묘한 일이 여럿 발생하였다. 안라쿠지에서 영혼이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안라쿠지의 신마(神馬) 앞다리가 (원문 분설) 라고 한다.”
——『만사이』 1419년 8월 7일

우선 이 급보에서 말하는 ‘몽고선’, ‘당나라 배 이만여 척’, ‘태풍에 의해 당나라 배가 절반 이상 바다에 침몰했다’와 같은 내용은 전부 원나라의 일본 원정(분예이의 역, 고안의 역) 내용을 갖다 붙인 위조문서라고 할 수 있겠다. 또 쇼니 측 병사가 이 교전에 참전하였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합전 중에 안라쿠지에서 ‘영혼’, ‘신마’와 같은 ‘영묘’한 일이 나타났다고 한다. 이처럼 쇼니 미쓰사다가 궤이 소식을 이용하여 급보의 ‘신병성’을 높이고 ‘군의 공적’을 날조하여 막부를 치켜세우려고 하였다.

또 하나의 예는 규슈단다이 모치노리의 급보다.

6) 참고문헌

7) 참고문헌

“6월 20일에 몽고와 고려의 군사 오백 척 가량이 대마도에 몰려와 공격할 때 쇼니의 군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합전하였다. 이때 기묘한 신변과 불가사의한 일이 여럿 벌어졌다. 적의 배가 비바람으로 흔들리며, 천둥이 크게 울리고 싸락눈까지 내렸기에 적군의 손이 얼어붙어 무기도 칠 수 없게 되어 동사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는 합전 중, 어디서인지 모르겠지만 비단 깃발을 쫓은 배 네 척이 나타나 대장으로 보이는 여자가 몽고 배로 갈아타 적군 삼백 명 가량을 바다에 던졌다고 한다.”

7월 15일 단다이 모치노리 『간문』 1419년 8월 13일

이 급보에 따르면 적의 배에 비바람과 싸락눈이 몰아쳐 적군의 손이 얼어붙어 무기를 칠 수 없었으며, 동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여자 대장이 삼백 명 가량의 적군을 바다에 던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 급보 또한 날조된 것이다. 우선 당시 규슈단다이는 시부카와 요시도시였으며, 단다이 모치노리라는 인물은 실존하지 않았다. 또한 ‘대장으로 보이는 여인’에 대한 묘사로 보아 일본 해의 여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또는 진구 황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급보의 작자에 대해서는 “히로타샤가 선전을 위해 뿌린 위조문서일 것”⁸⁾, “하치만 신이나 진구 황후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하치만구 관계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⁹⁾는 설이 존재한다. 즉, 신사 관계자가 선전을 위해 괴이 소식을 이용하였으며, 규슈단다이의 명목을 빌려 상기 급보를 위조한 것이다.

이후 1420년에는 기근으로 인해 천만 명이 사망하였다. 또 1421년 봄부터 역병이 돌아 수만 명의 인명을 빼앗아 갔다고 한다.¹⁰⁾ 이때 옛 이세 지방 신관이 이세 신의 신탁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세의 신관이 와서 하는 말이 6월 7일 이세 신에게 신탁을 받았다고 한다. 재작년 몽고 습래 시, 신의 뜻에 따라 이적을 벌하여 그들의 대부분이 사멸하였다. 그자들의 원령이 역병이 되어 수만 명의 인명을 앗아갔다고 한다.” (후략)

『간문』 1421년 7월 11일

즉, 재해는 대마도 정벌 시에 신에 의해 죽은 몽고 이적의 원령이 일으킨 화라는 것이다. 대마도 정벌과 관련된 괴이 소식은 이년 후 이세 신의 민간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 한 번 더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3. 결론

지금까지 대마도 정벌을 둘러싼 괴이 소식의 발포→유포→이용이라는 과정과, 이와 연관된 각 계층의 입장과 목적을 살펴보았다. 당시 사람들은 괴이에 대해 무척 열광했었던 듯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간문』 1419년 6월 29일조에 작자는 전투 중에 나타난 기묘한 일들을 기술한 뒤, “합전 중 일어난 일이 사실인지 알 수 없으며, 향간에 떠도는 소문에는 거짓도 많으리라.”라고 자신의 의견을 저술하였다. 즉, 당시 사람들은 향간에 떠도는 소문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규슈단다이의 급보를 듣고 작자는 “후대 신명의 위력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이 급보 또한 참이다.”라며 감탄했다. 또한 위에서 기술했듯 1421년, 역병 퇴치를 위해 대마도 정벌과 관련한 괴이 소식이 이세 신관에 의해 또다시 이용되었다. 하지만 사실 1420년 송희경이 사절로 일본에 가 대마도 정벌 사건은 명나라와의 연합 공격이 아닌 조선이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공격한 것임을 요시모치에게 분명히 하였다.¹¹⁾ 그러나 일본 측 사료에는 이에 대한 기재

8) 참고 문헌

9) 참고 문헌

10) 참고 문헌

가 전혀 없다. 이처럼 언뜻 보면 중세인은 어떤 사건의 진상보다 이와 관련된 괴이를 맹신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입장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냉철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세인은 괴이를 어느 정도 신봉하면서도 목적 실현을 위해 괴이를 냉정하게 이용하였다. 이러한 신봉과 냉정함을 함께 갖추고 있는 사상적 경향은 중세인의 정권과 종교 등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같은 부분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같은 중세인의 사상이 존재함을 증명하고 중세 시대와의 관계를 고찰해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번역책임자:김나정)

11) 참고 문헌